

[사회]

■ '수능 D-10' - 마무리 전략 이렇게

문제풀이 위주 요약 정리하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6일)이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0일이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수능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10~20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입전문가인 조종환과 고려학력평가연구소가 제시한 마무리 학습 전략 등을 살펴본다.

◇마무리 학습전략=자신있는 부분을 확실히 맞힌다는 생각으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정리해온 요약집이나 오답 노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나란이도가 실제 수능시험에 많이 반영됐던 만큼,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과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과목간 학습시간 안배도 중요하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특정 영역에 치우침 없이 고르게 시간을 배분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탐구영역을 비롯해 지망권 대학에서 집중 반영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실제 수능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2회 정도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수리영역은 1개 문항당 3분 정도의 시간이, 다른 영역은 1분30초 이내의 시간을 할당하도록 한다. 문제를 읽고 답을 추출한 후 표기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영역별 마무리 전략=언어영역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긴 글을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실전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국어 교과서 상하권 부록에 제시된 어법 부분은 반드시 읽어둬야 한다. 중요한 한자서

나 속담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의 중요 기사나 칼럼 등을 읽어두면 틀기, 쓰기, 독해 문제 풀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리영역은 모의고사나 문제집의 틀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실전훈련을 통해 번호순서대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나 주관식 문제를 먼저 풀면서 시험시간 안배에 대비하도록 한다.

외국어영역은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나 평소 보아온 책을 중심으로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독해는 한 문제당 평균 1분30초의 속도로 풀도록 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각 과목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한정돼 있으며 이

제까지의 수능시험이나 기존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문제 유형과 문제의 소재가 되는 내용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수험생 건강관리 요령=지금까지의 생활리듬에 무리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은 하루 최소 6~7시간 자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험생은 지금부터 기상시간을 오전 7시 이전으로 미리 맞춰 수능 당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커피, 술, 담배, 각성제는 모두 숙면을 방해하므로 삼가야 한다.

식사는 포만감을 느끼지 않도록 80% 선에서 절제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민한 두뇌활동에 좋다. 아침은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모의고사 빈도 높은 부분 중심 공부

국어책 부록 어법부분 꼭 숙지해야

대학-고교 '논술 협의체' 만든다

일선교사 의견 반영...오는 10일 첫 출범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영광 해통고 진학담당 등 일선 고교 교사들이 논술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처음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논술을 비롯한 대입 전형과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력회'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극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고 사교육 열풍을 막으려면 논술문제 출제 때 일선 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교와 대학 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박재남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하대)이 맡기로 했고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숙명여

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의대 입학처장과 대교협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영광 해통고를 비롯, 강화고(강화)·상인고(대구)·서령고(서산)·성보고(서울)·잡실고(서울) 진학담당 교사 1명씩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협의회는 논술고사를 공교육 안에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출제하도록 틀을 만들고 대학이 전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언하는 등 고교와 대학 간 입시문제 논의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는 출범식에서 운영진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일단 교육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과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논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사 임용고시 3.35대1 경쟁

2007학년도 광주지역 초등학교사 신규 임용 정원 감소로, 임용시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2007학년도 공립 교원 및 사립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초등학교사의 경우 142명 모집에 475명이 몰려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6학년도에는 300명 모집에 515명이 지원,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수가 줄었으나, 신규 임용 인원이 절반 가량 감축되면서 경쟁률이 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외 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14명 모집에 340명이 지원해 24.3대 1

의 경쟁률을,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19명 모집에 169명이 응시해 8.8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영양교사는 53명 모집에 78명이 지원해 1.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장애인 초등학교사와 장애인 영양교사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쳐 미달했다.

1차 시험은 오는 19일 광주 화정중에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12월27~28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12일에 각각 실시된다.

한편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사 300명 모집에 788명이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생 26% "아토피·천식 앓고 있다"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꼴로 아토피 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건교사회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생 1만1천43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습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16.3%의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3일 밝혔다.

'천식질환을 앓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9.4%가 긍정 답변을 했다. 조사대상 학생(응답자 기준) 중 25.7%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을 앓고 있는 셈이다.

전체 학생 가운데 27.7%의 학생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학생의 비율은 3.6%, 음주경험 학생 비율은 11.3%였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운동을 몇 번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32.6%의 학생이 '2~3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반면 31.1%의 학생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고교 2학년 가운데 4~5시간 이하 잠을 자는 학생이 22.4%였다. /연철뉴스



"떡에 치며 우리 것 배워요"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가마골 체험학습장'에서 열린 '2006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축제.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소속 학생들이 떡메를 치며 전통 떡을 만들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옷깃 여미게 하는 '비바람'

고기압이 후면에 들면서 맑은 뒤 흐려지겠다.

11월 6일 (음 9월 16일) 전국날씨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울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3.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3.0~4.0m. 남해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해돋이 06:58 ▲해질 17:34 ▲달출 07:37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showing the 7-day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including dates and weather icons.

24절기, 날씨와 얼마나 맞을까

이상고온 탓 '절기 따로 날씨 따로'

오늘 비...기온 뚝

계절의 변화를 가늠하는 24절기(節氣)와 실제 날씨는 얼마나 맞을까?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해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1월5일)의 경우 광주의 평균기온은 영하 4.2도로 평년(1971~2000년)보다 3.6도가 낮았다. 대한(大寒·1월20일)에는 그러나 4.5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4.6도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 찾아온 입춘(2월4일)은 '긴 겨울이 끝났다'는 의미지만 울퉁불퉁한 날씨가 이어졌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3월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18.7도로 평년보다 8도나 높았다.

'농사를 위한 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4월20일)에는 때맞춰 약한 비가 내렸지만, 완전한 봄이라고 하기엔 기온이 너무 낮았다.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10.3도로 평년보다 무려 10.2도 낮았다.

하지(夏至·6월21일)와 소서(小暑·7월7일)를 지나 일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7월23일)가 찾아왔지만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무더위는 없었다. 광주의 올해 대서 평균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4.2도 낮았다.

더위는 늦게 찾아왔다. 가을의 시작인 입추(立秋·8월8일)와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커진다'는 처서(處暑·8월23일)가 왔지만 시민들은 열대야로 밤잠을 설쳤다.

가을로 접어들어 백로(白露·9월8일)·추분(秋分·9월23일)·한로(寒露·10월8일)에도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된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10월23일)에도 서리가 내리기엔 기온이 너무 높았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11월7일)을 앞둔 6일 광주·전남에는 5~20mm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5~8도 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5~6도 낮은 12도로 예상된다. 입동인 7일은 5~16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차가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

Advertisement for Uretek construction services, featuring the Leaning Tower of Pisa and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ext includes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and '우레텍 공법의 특징'.

Advertisement for Kim Jae-gyu Police Academy, listing training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Text includes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and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Advertisement for Gwangju University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and '무등고시학원'.